

#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몇몇 교우들이 모여 2년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교우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홀로 되신 교우께서 준비 없이 맞은 홀로의 삶을 견디어 온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밤에 집에 들어 오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와 불을 켤 때마다 외로움이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할 경우 어둡기 전에 서둘러 집에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일찍 들어가느냐?"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교우께서는 "이젠 괜찮을 때도 되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을 사별한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교우가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십니다. "그게, 시간이 간다고,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사별한지 오래 된 사람도 가끔 사무치게 외롭고 그립습니다." 병들어 누워 앓는 다 해도 남편이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책에선가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상실의 아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 지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자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기에 몇 번 만나서 결혼 준비 상담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결혼식 순서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교수님은 신랑에게 "기분이 어떨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매우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고 물으니, 신랑은 "주변에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해 결혼이 일찍 끝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모든 결혼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네. 이혼으로 인해 일찍 끝나기도 하고, 사별로 인해 끝나기도 하지. 하지만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네. 그러니 미래에 있을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지금 누릴 행복을 망치지 말게."

인생은 더불어 살게 지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문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건강과 생명이 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저 자신에게는 더 유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홀로 살아야 하는 제 아내에게는 큰 아픔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지만, 할 수 있는대로 오래도록 옆에 남아 주는 것이 제가 아내에게 해 줄 가장 큰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제 아이들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 몸이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 하루 **한** 시간

“개인기도시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 <기도학교> 안내

우리 교회는  
'하루 한 시간 기도'와 '전교인 성경일독'을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 한 시간의 영적 생활을 하도록 돕는 특별 과정을  
연입니다.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숨통'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 1강: 기도의 해부학(Anatomy of Prayer)

-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펴 보면서 왜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2강: 기도의 생리학(Physiology of Prayer)

- 다양한 방식의 기도 유형과 각 유형의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3강: 기도의 생태학(Ecology of Prayer)

-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전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심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일상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 하루 수양회: 기도 클리닉(Prayer Clinic)

- 가까운 수양관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유형의 기도를 실습하면서 기도 생활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합니다.

##### 시간과 장소:

1강부터 3강까지는 7월 8일, 15일, 22일(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모입니다. 하루 수양회는 체난도아 수양관(895 Fishers Road, Toms Brook, 교회에서 1시간 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입니다.

-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오래 참고 있으면 질식하는 것처럼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귀'입니다. 피상적인 사귀으로는 그 대상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사귀가 깊어지려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끼니를 찾아 먹듯이 우리의 믿음도 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도 천천히 묵상하며 그 의미를 곱씹어야 합니다.
- '전교우 성경일독'은 영적인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교우, 친구 등)을 위한 **중보기도**는 믿는 이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교회, 직장, 나라 혹은 세계의 중요한 일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아 찬송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은혜가 내립니다.
- 그런 과정에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그것이 **기도 일기**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 중보기도와 찬양에 마음을 쏟아 보십시오. 한 시간이 오히려 부족할 것이며, 당신의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질서를 잡고 방향이 설 것입니다.
- 하루 한 시간은 와싱턴사귀의교회 교인의 필수적인 삶의 습관입니다.

-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고린도후서 1-13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금요일(6월 30일)부터 전교인 수양회를 섬겨 주신 임태일 목사님 (아리조나 제일메사침례교회 담임)과 Philip Lee(Global Mission Church)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겨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예배 중에 각종 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에 대한 축하 순서를 가집니다. 졸업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6학년 진급생: Christina Cho, Emma Kim, Ivy Han, Josiah Byrd, Ryan Yi, Sophia Jang, Kyle Shin
  - 고등학교 졸업생: Sam Cha, Jenny Jang, Zion Jang
  - 대학원 졸업생: Mieh Han
- 오는 6일(목)에 떠나는 멕시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는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Grace Chon, Daniel Jang, Jean Joo, Hyun Kim, Yaein Kim, Lois Park, Paul Park, Jane Ryu, Nathan Yoo, Caitlyn Yoon, 김건우, 김혜란, 하안숙
  - 출발: 6일(목) 델레스 공항에서 12:45 PM
  - 도착: 15일(토) 델레스 공항에 4:15 PM
- <기도학교> 1기 모임을 오는 토요일(7월 8일) 오전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시면 됩니다.
- 10일(월) 오후 7:30에 213-215호에서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고, 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 오늘 이동 도서부는 쉽니다.
- 지난 주일에 있었던 목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월부터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김형균(HK Kim) 군이 7월부터 파트 타임 인턴 전도사로 ES를 섬기게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티 선교(김은숙 자매)의 진행에 대한 소식은 다음의 링크에 들어가시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5Z-pYpPT8w1dI9LaE13aG9ZOTg>에 접속하셔서 다음의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log-in: haitikumc17@gmail.com
  - pw : lovehaiti

- 담임목사 동정 및 심방
  - 7월 4일(화) 멘토링, 이환섭
  - 7월 5일(수) 공숙자
  - 7월 8일(토) 조정래/박은정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도미니칸 리퍼블릭(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전교우 수양회를 위해

**주일 예배**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20분/208호

**Youth & EM**  
 오후 2시/ROC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213-215호

**새벽 기도회 및 중보 기도회**  
 (토)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찬양 새벽 예배**  
 (매달 마지막 토) 오전 6시 / 본당

**7월 성경일독 진도**

3일 (월)	4일 (화)	5일 (수)	6일 (목)	7일 (금)	8일 (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4-5장	고린도후서 6-7장	고린도후서 8-9장	고린도후서 10-11장	고린도후서 12-13장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오하나/조정호/김인애/김정규/주준호/주규리
- 바나바: 이수진/김희옥/박지나
- 멀타: 이백호/윤석호/김애린/김원희/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사: 허옥신/김용규/김숙영
- 성찬사: 류수연

**제자반**

**성경일독반**(인도: 김영봉 목사)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방학 213-215호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인도: 도현주)  
 수요일 / 아침 10시 / 방학

**기도학교**(인도: 김영봉 목사)  
 토요일/오전 8시/213호  
 \*7월 8일 시작합니다.

**7월 봉사 안내**

- 안내와 헌금: 윤흥로/문영애
- 7월 9일: 회중기도: 박준용  
 성경봉독: 김제국
- 주일 친교: (오늘) 씬  
 (다음주) 언약속

<b>(6월 25일)</b>			
한어 예배 (KM)	184	주일학교	\$44
영어 예배 (EM)	20	주일헌금	\$285
청소년 예배 (Youth)	24	주정/월정	\$4,580
교회학교 (Sunday School)	17	십일조	\$2,760
		선교헌금	\$110
		감사헌금	\$740
		사랑헌금/기타	\$1,000
<b>합계:</b>	<b>245</b>	<b>합계:</b>	<b>\$9,519</b>

**2017년 7월 2일 | 성령강림후 네 번째 주일**

본당 / 2:00 pm

- 사회: 김영봉 목사
- 피아노: 이애령/오르간: 김성은
- 전주 Prelude 오르간
-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점화자
- 경배 찬송 "하늘에 계신" 635장 다같이  
 Hymn of Invocatio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다같이  
 Hymn of Praise Jesus, we enthrone You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 회중 기도 Danny Chung  
 Congregational Prayer
- 성찬식 Holy Communion 말은이
- 졸업생 축하 Recognition of Graduates 말은이
- 멕시코 선교팀 파송 Blessing for the Mission Team 말은이
- 성경 봉독 마가복음 6:30-44, 요한복음10:3-5 김대영  
 Scripture Reading Mark 6:30-44, John 10:3-5
- 찬양 내가 매일 주의 사랑으로 살게하소서 성가대  
 Anthem
- 설교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에" 임태일 목사  
 Sermon
- 응답의 기도 Prayer of Reflection 다같이
- 송영과 봉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다같이  
 Doxology & Offering
- 목회기도 김영봉 목사  
 Pastoral Prayer
- 결단의 찬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같이  
 Hymn of Commitment 508장(통 270) I am a stranger here
- 축도 김영봉 목사  
 Benediction
- 인사와 광고 김영봉 목사  
 Greeting & Announcements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